

인도네시아 뽀팔랑안 여성들의 외설주문 : 언어, 몸, 그리고 욕망

강윤희*

1. 서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동부 내륙에 살고 있는 한 소수민족인 뽀팔랑안 사람들은 일상 생활에서 많은 주문과 주술을 행하고 있다(강윤희 2004 참조). 이 논문은 뽀팔랑안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주문 중에서, 여성들의 주문인 “몬또차불”(monto cabul)을 기술, 분석한다. 여기서 “몬또”(monto)란 만트라(mantra), 즉 주문이라는 뜻의 뽀팔랑안 지역 방언이며, “차불”(cabul)이란, 소위 “야한 것”, “외설” 또는 “음란물” 등을 말하는 것으로 대부분 여성의 성기에 관한 언급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필자가 현지조사를 하던 1998년에서 2000년 당시, 뽀팔랑안의 많은 기혼 여성들이 “외설주문”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주문의 사용은 남편의 성적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여성 자신의 몸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Center for Folklore and Ethnography 연구원

이 연구는 뽀뽀랑안 기혼 여성들의 ‘외설주문’의 언어적인 특질과 구조를 기술, 분석함과 동시에 그 사회문화적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여성들의 장르(women’s genres)¹⁾는 여성학자들이나 종속집단연구에서 여성들이 표현하는 지배 문화에 대한 저항과 새로운 해석을 밝히기 위하여 주목되어 왔다. 예를 들어, 베드윈 여성들의 시와 노래(Abu-Lughod 1986), 북부 인도 여성들의 결혼식 민속요(Raheja and Gold 1994), 아프간 여성들의 내러티브(Grima 1992)들의 장르들은 각 사회의 여성들이 남성 지배적인 공적영역에서는 드러내지 못하는 여성 자신의 행위성과 주체성을 표현하고,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와 담론에 저항하는 표현 도구로서 연구되었다. 여성 언어인류학자인 스잔 같은 따르면, 여성의 장르는 성과 권력에 대한 갈등과 투쟁의 장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이러한 기존의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 예를 들어, ‘여성의 목소리,’ ‘여성의 언어’ 등은 ‘성별화된 목소리’(gendered voice)를 전제로 여성들이 “보다 강한 권력 집단의 지배적인 관점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자신들 스스로의 관점과 해석을 나타내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힌바 있다(Gal 1991: 176). 따라서 기존의 연구들은 이러한 ‘여성의 장르’를 통하여, 지배문화에 저항적인 여성의 관점을 밝힐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르의 연행을 통해서 문화적으로 구축되고 발현되는 여성들의 정체성을 밝히는 데 주력했다(Hall and Bucholtz 1995; Livia and Hall 1997).

이러한 기존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본 연구는 뽀뽀랑안의 외설주문을 뽀뽀랑안 여성들의 주체성과 행위성을 표현하고 구축하는 사회적 행

1) 여성들의 장르(women’s genre)란, 여성들에 의해 연행되는, 여성들을 위한 표현적 장르, 예를 들어, 여성들의 다양한 말하기의 행위, 노래, 시, 소설, 연극, 춤, 공예 등을 일컫는다. 그동안의 언어인류학, 민속학 등에서는 이러한 여성들의 표현적 장르가 남성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향유되는 표현문화와는 다른 주제와 스타일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해 왔다(Apadurai et al. 1991 참조). 또한 본 논문에서 장르는 고정된 텍스트의 집합체를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한 텍스트의 연행과 해석까지도 포함하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한다(Hanks 1996 참조).

위의 한 양식으로 분석한다. 또한, 이러한 주술 장르의 연행과 해석에서 드러나는 ‘몸’과 ‘욕망’에 대한 여성의 관점을 설명하며, 특히 이러한 여성의 시각에서 나타나는 유동성과 다중성에 주목한다(Raheja and Gold 1994; Meyer 2000). 따라서 이 글은 뽀탈랑안 여성들의 외설주문을 분석함으로써, 뽀탈랑안 여성들이 그들의 몸과 욕망에 대한 남성중심적인 시각에 대하여 단순히 ‘배격’하고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사회의 지배적 관점을 차용하고, 패러디하며, 동시에 전복하고 있음을 보이려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우선 뽀탈랑안 여성들의 외설주문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회적 맥락으로서 뽀탈랑안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대하여 고찰하고, 특히 뽀탈랑안 사회에서 지배적인 젠더 이데올로기로 작용하는 이슬람의 남성/여성에 대응되는 이성(*akal*)과 욕망(*nafsu*)이라는 이분법적 담론을 살핀다. 둘째, 뽀탈랑안 여성들의 주문의 ‘텍스트’적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언어학적인 특질과 구조를 분석하고, 이러한 텍스트가 반영하고 있는 뽀탈랑안 사회의 몸과 성적 욕망에 대한 담론을 살펴본다. 또한 이러한 텍스트와 그 연행을 둘러싼 뽀탈랑안 여성들의 해석을 살펴보고, 이러한 해석을 통해 드러나는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몸’과 ‘욕망’에 대한 다양하고 유동적인 관점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외설주문을 ‘행위’의 차원에서 분석하여, 어떻게 뽀탈랑안 여성들이 이러한 외설주문의 연행을 통해 뽀탈랑안 사회의 지배적인 이슬람적 담론인, 남성/여성과 이성/욕망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극복하며, 그것은 어떻게 그들의 사회적 정체성과 연결되는지를 살핀다.

이 논문에서 분석하고 있는 여성들의 외설주문의 텍스트와 그와 관련된 담화들은 필자가 1998년에서 2000년에 걸쳐 약 14개월 동안 뽀탈랑안의 한 마을인 데사 브풍과 그 인근 마을에 거주하면서 수집한 자료들에 근거하고 있다. 특히 외설주문의 텍스트는 그 자료의 비밀성과 접근의 한계 때문에, 필자와 보다 친밀한 라뽀를 형성한, 마을의 3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약 다섯 명의 기혼 여성들과의 심층적인 인터뷰를 통하여 수집 채록되었다.²⁾ 그러나 외설주문의 사용에 관련되는 담화들은 이러한 다섯 명의 주된 여성 제보자 이외에, 다른 뽀팔랑안 여성들 그리고 뽀팔랑안 남성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수집되었다.

2. 뽀팔랑안의 남성과 여성

뽀팔랑안 부족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동부 리아우 주에 위치한 고립부족이다. 이들은 울창한 밀림 속 캄파르 강 유역에 살고 있으며, 리아우 주의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개발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은 소외된 부족이다. 따라서 대다수의 뽀팔랑안 사람들은 여전히 전통적 방법의 화전농사, 어업과 채집 등의 생계경제 활동을 하며, 전통적 관습과 생활양식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뽀팔랑안 사회의 서쪽으로 인접해 있는 모계사회로 유명한 미낭까바우 부족과 마찬가지로 뽀팔랑안 부족은 모계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뽀팔랑안 부족의 29개의 하위씨족(*suku*)에의 성원권은 모계를 따라 전승되며, 토지, 집 등의 유산도 딸 쪽으로 상속이 된다. 또한, 같은 씨족 성원끼리의 혼인을 금하는 씨족외혼과 남편이 부인의 거처로 옮겨오는 부거제(婦居制)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뽀팔랑안 사회에서 모계상속의 전통은 여성들의 실제적인 권위와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생산력이 높은 농민사가 주를 이루는 미낭까바우 사회에서, 여성 연장자는 토지를 관리하고, 농경을 위한 노동력을 조직하고 통제하며, 자식과 남편의 노동력, 그리고 그에 따른 수입에 대한 소유권

2) 이 논문의 주제보자인 5명의 기혼여성들은 모두 화전농의 생계경제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이 중 나이가 50세 이상인 3명의 여성들은 공식적인 교육을 받은 적은 없지만, 많은 주술과 주문을 알고 있는 여성들로 마을 주민들 사이에 평판이 나 있었다. 30대의 제보자 두 명도 모두 SD(*skola dasar*: 초등학교)가 최종학력이다.

을 주장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Blackwood 2000). 반면, 생산성이 낮고, 소규모인 화전 농경을 주로하는 뿌탈랑안 사회에서, 여성들은 토지는 소유하나, 생산을 위한 노동력을 조직하지 못하므로, 그에 따른 경제력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예를 들어, 현지조사 당시 50세의 여성 제보자 이부 꿈뻬은 자신이 6헥타르의 땅을 가지고 있지만 일할 사람이 없어서 모두 황폐화되었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모계전통과 함께, 뿌탈랑안 사회는 그 동쪽에 위치한 리아우 말레이족의 이슬람 전통의 영향으로 강력한 가부장적사회의 특징을 보인다(Andaya 1993 참조). 그 한 예로, 뿌탈랑안 사회는 전통적으로 남성들만이 그들 부족의 전통적 관습과 규범인 아닷(adat)을 행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가져왔다. 즉, 각 하위 씨족의 토지와 소유물이 모계를 따라 상속된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의 과정과 규범을 통제하는 권리는 그 씨족의 남자 성원에게 주어진다. 이러한 가부장적 전통의 영향 아래, 뿌탈랑안 사회는 모계사회임과 동시에, 남성 지배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뿌탈랑안 사회의 남성 우월적 성격은, 그들의 이슬람 젠더 이데올로기의 수용에서 더욱 명확해진다. 뿌탈랑안 사람들은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설명할때, 이슬람의 개념인 ‘아칼’(akal) 과 ‘납수’(nafsu)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아칼’이란, 이성, 지성, 합리성 등을 의미하며, 반면 ‘납수’란 육체적 본능, 욕망, 정욕, 열망 등을 가리킨다. 이슬람 교리에 따르면, 동물들은 오직 ‘납수,’ 즉, 육체적 본능만 지닌 반면, 인간은 ‘납수’와 함께 이를 통제할 ‘아칼,’ 즉 지성을 가지고 있다(Siegel 1969 참조). 예를 들어, 이슬람에서 한 달간 단식을 하는 라마단을 지키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제어하고, 개인의 영적, 정신적 파워를 증진시키는 수련의 과정이라고 여겨진다.

전통적으로 이슬람 사회에서 여성들은 자기절제의 능력과 영적인 힘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슬람교의 관점에서 보면, 여성들

은 물질적인 조건과 육체적 욕구에 보다 충실하므로 금욕이나 고행을 통한 수행을 할 수 없으며(Hartley 1990), 이에 따라 여성들은 영적인 힘을 가지지 못하고, 따라서 더욱 쉽게 병에 걸리거나, 오염될 수 있다고 설명된다(Tsing 1993). 이러한 논리에 따라, 여성은 자신의 본능과 욕구에 지배되는 정신적으로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깔’이 우세한 남성에게 의해 보호되고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Peletz 1996). 이와 마찬가지로, 뿌팔랑안 사람들은 각각 남성/여성을 아깔/납수(지성/욕망)에 연결시키며, 아깔이 납수를 지배해야 하는 것처럼, 남성들이 여성들을 통제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남성/여성에 대한 지배적인 담론은 어디까지나 이데올로기적인 것이며, 실제 생활의 차원에서 각 성별에 대한 담론은 맥락에 따라, 또 그 주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Peletz 1996 참조). 예를 들어, 뿌팔랑안 사회의 일상적 담론에서, 남성들은 보다 쉽게 유혹에 넘어가며, 자신의 육체적 쾌락을 위해 돈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그려지는 반면, 여성들은 자신의 가족과 자식을 위해서 개인적인 욕구나 쾌락을 마다하는 실질적인 생활인으로 그려진다. 특히 필자가 현지조사했던 당시, 뿌팔랑안 마을에는 유난히 ‘잔다’(janda), 즉 남편과의 사별 또는 이혼 등의 이유로 혼자사는 여성이 많았는데, 이들 뿌팔랑안 잔다 중에는 남편과의 사별보다는 ‘버림’을 받아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이러한 잔다 중의 대다수는 외부인과 결혼한 사람들이었으며, 이들 외부인들은 뿌팔랑안 지역에 몇 년간 머무른 후, 부인과 자식을 버리고, 고향의 가족으로 돌아간 경우가 많았다.³⁾ 또 다른 이유로는 남편들이

3) 당시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이주정책(transmigrasi)을 통해 자바섬과 같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기도 했는데, 현지조사 당시, 비교적 고립되어 있던 뿌팔랑안 지역에조차도, 자바인들이 이주해 와서, 임시계약직으로 근처의 농장이나 제지공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뿌팔랑안 여성들의 설명에 의하면, 특히 자바 남자들은 성적욕구를 참지 못하고, “예쁜 여자들만 보면, 결혼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지만” 결국 자신의 고용계약이 끝나면, 뿌팔랑안 부인과 아이들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가족을 무책임하게 버리고 떠나버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남성들의 성욕절제의 어려움이나 쾌락의 추구 등은, 뽀팔랑안 사회에서 남성들의 지위나 위세를 떨어뜨리지는 못한다. 이슬람의 혼인법상 아내를 동시에 4명까지 두는 것이 허용되므로, 실제로 현지조사 당시 뽀팔랑안 마을에서는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는 남성들이 종종 있었으며, 오히려 여러 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있음은 남성의 부와 지위의 상징이 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현지조사 기간 중, 뽀팔랑안 부족장은 세 번째의 부인을 맞이하였는데, 이러한 부족장의 세 번째 결혼은 부족 성원들이나 심지어 부족장의 부인들에게조차 비난 받지 않았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부인과 결혼하는 부족장의 능력에 감탄하였으며, 부족장의 부인들은 자신을 버리지 않은 것만으로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라고까지 말했다.

한편, 뽀팔랑안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은 각각 다른 종류의 생계 활동에 종사한다. 남성의 경우는 주로 이동이 요구되거나 육체적 힘이 필요한 활동, 예를 들어, 어업이나 벌목 작업, 그 밖에 화전을 위해 나무를 베고 땅을 고르는 일을 담당한다. 어업의 경우 뽀팔랑안 남성들은 강가에 임시로 집을 지어 머무르면서 고기를 잡고, 일주일에 한번씩 마을 근처의 장터에 내다 팔며, 벌목 작업을 위해서 다른 남성들과 함께 팀을 만들어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열대림에서 머무르기도 한다. 반면, 여성들은 대부분 마을에 남아 아이들을 돌보며, 집 근처의 호수에서 고기를 잡거나, 고무나무에서 고무를 채취하며, 농사를 짓는 일을 담당한다. 따라서 뽀팔랑안 남성들은 대부분 마을을 떠나 생활하는 기간이 긴 반면, 여성들은 집안에 머무르며 가사와 육아를 담당한다.

최근 뽀팔랑안 인근 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된 경제개발은 이러한 뽀팔랑안 남성과 여성의 성별 경제활동, 특히 그들의 이동성의 차이를 심화시켰다. 많은 젊은 남성들은 뽀팔랑안 마을을 떠나 좀 더 나은 직업

을 찾아 도시로 가기를 원하는 반면, 여성들은 이러한 이동성을 갖지 못했다. 이러한 남성들의 증가된 이동성, 특히 도시지역과의 빈번한 왕래는 여성들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뽀팔랑안 여성들은 자신의 남편이 도시의 여자들에게 유혹 당할까봐 노심초사했으며, 실제로 많은 뽀팔랑안 남성들은 도시 여성들에게 호감을 표현하며, 자신의 부인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도시에 가면, 여자들이 예쁘지, 말도 조신하지, 행동도 참하지. 거기에 비하면, 여기 마을 여자들은 억세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소리 지를 줄만 알고... 여기 여자들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모르니, 에티켓도 없고, 대화하는 방법도 모르고, 심지어 어떻게 옷을 입는지, 화장을 하는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 남편을 어떻게 섬기는 지도 모르고..(도시여자들을) 좀 보고 배워야 하는데 말이야.”(부족장과의 인터뷰 중)

이러한 묘사는, 뽀팔랑안 남성들이 뽀팔랑안 여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을 잘 보여준다. 한편, 이와는 달리, 뽀팔랑안 여성들은 도시의 여성들을 “이양을 떨고, 교태를 부리며, 남자를 밝힌다”고 설명하며, 과도한 정욕과 물질적 욕망으로 남의 남자를 빼앗아갈 위협한 존재로 설명한다. 따라서 남성들의 증가된 이동성과 외부인과의 접촉은 뽀팔랑안 여성들에게 남편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증가시키는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3. 뽀팔랑안의 주술 장르와 젠더

뽀팔랑안 사람들은 거의 모든 일상적 활동에 주문과 주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술행위에서 사용되는 주문의 장르는 크게 ‘사회적 주문’(monto masyarakat)과 ‘개인적 주문’(monto pribadi)으로 나뉜다. 여기서 ‘사회적 주문’에는 농경이나 벌꿀 채집 등의 경제적 활동을 위한

주문과 병의 치료나 출산 등에 사용되는 주문 등이 있고, ‘개인적 주문’에는 개인의 미의 증진을 위한 ‘쁘마니’(pemani), 상대방을 유혹하기 위한 사랑주문인 ‘뽕가시’(pengashi), 각종 싸움과 경쟁에서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 사용하는 ‘쁘눈дук’(penunduk) 등의 하위장르가 해당된다. 또한 ‘사회적 주문’은 사면, 산파 등의 의례 전문가가 병을 앓는 환자나 출산을 하는 여인을 도와주기 위해 행하는 공공적인 의례를 위한 것이라면, ‘개인적 주문’은 이러한 의례전문가의 도움 없이 개인 스스로가 사적인 공간에서 조용히 자신의 몸에 주문을 외워서 실행하는 것이다(강윤희 2004 참조).

한편, 개인적 주문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구애에 주로 사용되는 주문인 ‘쁘마니’와 ‘뽕가시’는 “젊은이 주술”(ilmu muda)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것은 이러한 구애를 위한 주술은 주로 결혼할 상대를 찾는 미혼의 남녀가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뽕팔랑안 제보지들에 따르면, 여성들은 자신의 몸에 주문을 외워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이쁜이 주문’, 즉 ‘쁘마니’를 주로 사용하고, 남성들은 다른 여성들을 유혹하기 위한 ‘사랑 주문’인 ‘뽕가시’를 더욱 많이 사용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여성/남성이 사용하는 주술 장르의 차이는 각각의 성이 가지는 구애에서의 적극성의 차이를 반영한다. 뽕팔랑안 사람들의 관점에서, 남성은 좀더 적극적으로 마음에 드는 여성을 ‘홀리는’ 주술을 행하는 반면, 여성들은 자신을 예쁘게 꾸며서, 상대방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라는 소극적인 성향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여성과 남성의 사이에 사용되는 주문 중에는, 기혼 여성들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사용하는 ‘외설주문’이 있다. 뽕팔랑안의 ‘외설주문’은 주로 그 내용으로 여성의 성기에 관한 언급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이러한 주문의 사용은 성관계시 성적 만족도를 높이고, 동시에 여성의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믿어진다. 또한 이러한 외설주문 중에는 성관계시에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남편으로 하여금 ‘머리를 조아리게

하는’ ‘쁘눈дук’ 원치 않는 임신을 막는 소위 ‘가족계획 주문’(monto K. B.) 등이 있다.

한편, 뿌딸랑안 남성의 경우도 여성들의 외설주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주술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남성의 주술은 ‘주문’이나 ‘말’의 형태가 아닌, 특수한 수련법을 통한 것이라고 보고된다. 예를 들어, ‘다람쥐 성기 비법’(Ilmu Culo Tupai)⁴⁾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수련법은 남성들로 하여금 강한 정력을 가지게 하는 특수한 주술행위이다. 당시 70세의 남성 제보자인 다민에 따르면, 남성들의 ‘다람쥐 성기 비법’은 마치 요가와 같이 여러 가지 몸동작을 취하면서 남성의 몸에 특수한 정기를 불어 넣는 것이며, 이를 통해 남성들은 강한 정력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뿌딸랑안 여성들에 따르면, 남성들이 이러한 주술행위를 하여 과도한 정력을 얻게 되면 그것은 여성의 몸을 해칠 만큼 위험한 것이므로, 이에 대응하여 여성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설주문’을 사용한다고 한다. 따라서 여성들의 외설주문에는 성관계 전에 사용하는 ‘욕망을 여는’(buka nafsu) 주문과 성관계 이후에 연행하는 ‘몸을 잠구는’(kunci badan) 주문이 구분되어 있으며, 특히 ‘몸을 잠구는’ 주문을 연행하는 것은, 남성의 과도한 성욕에 대하여 여성이 몸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지키는 방법으로 강조된다.

이처럼, 뿌딸랑안 남성과 여성은 이성의 ‘보이지 않는’ 주술적 공격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으며, 따라서 뿌딸랑안 제보자들 대부분이 약 15세에서 17세 정도가 되었을 때 이성간의 구애와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술을 배우기 시작하였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주술의 학습을 위해, 뿌딸랑안 소년들은 대부분 친구들과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여행을 다니며 주술을 전승해 줄 선생님을 찾는 반면, 소녀들에게는 이러한 여행이 허락되지 않으므로, 대부분 자신의 어머니, 할머니 등

4) 이러한 주술행위에 다람쥐 성기 비법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몸집에 비해 성기가 큰 다람쥐는 뿌딸랑안 사회에서 정력의 상징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가족 내의 연장자에게서 주술과 주문을 배우게 된다고 한다. 특히 남성과 여성 사이의 구애에 사용되는 주술은 이성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금기 시되어 있으므로, 대부분의 남성은 남성 연장자에게서, 또 여성은 여성 연장자에게서 주술과 주문을 습득하게 된다. 당시 61세의 남성제보자 임사리프는 이러한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전쟁터의 적”으로 비유하며, 이성에게 주술을 가르치는 행위는 “적에게 무기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뽀팔랑안 사회의 남성과 여성은 마치 ‘주술’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팽팽히 맞서듯 서로 대결하는 구도로 그려지고 있다.

4. “욕망을 열고”, “몸을 잠구는” 외설주문 : 여성의 몸에 대한 사회관습적 구축

이번 절에서는 외설주문의 장르에 속하는 두 가지 종류의 주문을 분석하여, 그러한 주문의 텍스트에 반영되고, 동시에 규정되는 뽀팔랑안 여성의 몸과 욕망에 대한 관점과 해석을 살펴본다. 첫 번째로 분석할 주문은 성관계 전에 사용되는 “일곱 가지 맛의 기도”(Doa Tujuh Aso)이며, 두 번째로 분석할 것은 성관계 후에 여성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연행하는 “파티마의 문”(Kunci Kati Fatima)이라는 주문이다.⁵⁾ 한편, 이러한 주문의 텍스트적 차원에서의 분석은, 뽀팔랑안 여성 장르로서의 ‘외설주문’에서 발견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저항적’이고 ‘대안적’인 여성의 목소리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여성의 몸과 욕망에 대한 시각이 남성중심적이고 사회 관습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해되고 표현되고 있음을 밝힐 것이다.

5) 이 논문에서 분석하는 외설주문의 텍스트는 제보자에 따라 다소 달랐지만, 어휘의 차이만이 발견된 텍스트의 구조는 거의 일치하였으므로, 수집했던 주문들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것을 골라 분석하였다.

1) ‘일곱 가지 맛의 기도’

‘일곱 가지 맛의 기도’라는 제목의 외설주문은 여성이 성관계시 자신의 “욕망을 열기 위해”(buka nafsu) 사용하는 주문 중 하나이다. 여기서 ‘일곱 가지 맛’이란, 뽕딸랑안 사회에서 관습적으로, 성관계시 남성이 느끼는 여성의 질의 일곱 가지 느낌을 말한다. 부족장의 첫째 부인이었던 당시 44세의 제보자 이부 또마에 의하면, 이 주문의 제목인 ‘일곱 가지 맛’을 뜻하는 ‘뚜주 아소’(tujuh aso)의 ‘뚜주’란 ‘일곱, 칠’이라는 숫자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발음상 “동의하다”라는 뜻의 동사인 “(스)뚜주”(setujuh)를 의미하기도 하며, 또한 ‘아소’(aso)란 ‘맛’, ‘느낌’을 가리키므로, 상대방 남성과 “맛이 딱 맞는” 성관계를 할 수 있게 하는 주문이라고 설명한다.

<주문 1> “일곱 가지 맛의 기도”(Doa Tujuh Aso)⁶⁾

- | | |
|---|---------------------------------------|
| 1. Bismillahirrahmanirrahim | 1. 알라의 이름으로 |
| 2. Tumbuh kunyit, tumbuh tomu | 2. 꾸닛(생강종류의 식물)이 자라네, 또무(약초의 일종)가 자라네 |
| 3. Tumbuh diate tulang kaco | 3. 거울 위에 자라네 |
| 4. Kuat sombu daging basombu | 4. 완전히 아문, 다시 돋은 새살 |
| 5. Aku mamakai tuju aso | 5. 나는 “일곱 가지 맛”을 사용한다 |
| 6. Kok duduk taaso-aso | 6. 꼭 (그가) 앉거들랑, 자꾸 느껴지고 |
| 7. Kok togak taaso-aso | 7. (그가) 서도, 자꾸 느껴지고 |
| 8. Lubang puki aku iko | 8. 이 내 뿌끼(여성의 성기) 구멍이 |
| 9. Sataun jalan da'at | 9. (그가) 일 년을 길을 가고, |
| 10. Tigo bulan palayi'an | 10. (그가) 세 달을 배를 타도, |
| 11. Lubang puki aku iko taaso-aso jo | 11. 내 이 뿌끼의 구멍이 자꾸 자꾸 느껴지네 |
| 12. Sapuluh cai bini, | 12. 열 번을 침을 찾고 |
| 13. satu cai kondak | 13. 백번을 애인을 찾아도 |
| 14. Tak ado sasodap lubang puki aku kio | 14. 내 뿌끼 구멍만큼 맛있는 건 없도다 |
| 15. dik <nama> | 15. 그의 부인 <누구> (각자의 이름을 말한다.) |
| 16. Kabullah kabulmuhammad | 16. 알아여, 모하메드여, |
| 17. Barkat aku mamamkai tuju aso | 17. “일곱 가지 맛”을 사용하는 나를 축복하소서 |

6) 이러한 주문과 구조는 똑같으나, 그 어휘의 선택에서 다소 다른, 또 다른 버전의 일곱 가지 맛의 기도는 Kang(2002)에서 분석한바 있다.

여기서 <주문 1>의 언어적 구조를 살펴보면, 텍스트의 초월성을 증가시키는 많은 언어적 장치가 발견된다. 여기서 초월성이란, 특정 텍스트의 내용과 형식이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화되지 않고 고정되어 있으며, 현재 수행되는 시점에서의 각종 상황적 요소들로부터 독립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강윤희 2006 참조). 예를 들어, 처음의 1절과 마지막의 16-17절에 나타나는 이슬람 문구는 뽀탈랑안을 비롯한 다수의 말레이 주문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프레임이며, 이러한 프레임의 사용을 통해 <주문 1>은 이슬람 기도의 형식을 가지게 된다(강윤희 2004; Skeat 1900; Endicott 1970 참조). 이어서, 제 2절과 4절, 3절과 5절이 각운을 이루는 말레이의 전통 사언절구인 뽀툰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전체 텍스트의 시적인 효과를 부여한다. 또한 주문의 본문 안에 “나는 ‘일곱 가지 맛’을 사용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현재의 언술행위가 현재 화자인 “나”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고정되어 있는 텍스트를 반복하고 있는 것임을 나타낸다.

뽀탈랑안 사람들은 이처럼 과거의 조상으로부터 전승되어 온 주문을 반복함으로써, 그러한 주문이 지닌 초월적인 파워를 현재에 다시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믿는다. 그들에 따르면, 이러한 ‘조상들의 말’(kato o'ang tuo-tuo dulu)은 전지전능한 ‘알라’에게서 기원한 것이다. 뽀탈랑안 사람들의 설명에 따르면, 신의 메시지를 전달받은 조상들은 다시 그러한 메시지를 인간의 말로 바꾸어, 후세의 자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고프만(Goffman 1974, 1981)이 구분한 세 가지 레벨의 화자 개념을 적용시킨다면, ‘알라’는 제 1의 화자 또는 책임자(principal)가 되며, 알라의 메시지를 전달받아 다시 인간의 말로 바꿔놓은 조상은 작가(author)로, 그러한 조상의 말을 되풀이하는 현재의 화자는 애니메이터(Animator)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뽀탈랑안 사람들의 논리에 따르면, 이러한 ‘조상들의 말’에는 신이 인간에게 가르쳐준 초월적이고 신비한 주술적 힘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조상들의 말’을 반복하는 행위만으

로도, 그 주문에 내재되어 있는 파워를 현재에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의미론적으로도 <주문 1>은 일정한 주제가 반복되는 병렬구조(parallelism)를 취하고 있다⁷⁾. 우선, 이 주문에는 상대가 되는 남성의 ‘상상된’ 각종 행위와 느낌이 묘사되어있다. 예를 들어, “앉고”, “서고”, “길을 가는” 등등의 행위와 함께, 계속해서 여성화자의 ‘뿌끼’, 즉 ‘성기’를 느끼고 있는 남성의 모습이 그려진다. 이러한 의미론적 구조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일곱 가지 맛의 기도”의 의미론적 구조⁸⁾

A : 상대 남성의 활동: (그가) + ~한다, 또는 느낀다 (동사 또는 상태동사)
 B : 여성 화자의 몸

6. Kok duduk taaso-aso	6. 꼭 (그가) 앉거들랑, 자꾸 느껴지고	A
7. Kok togak taaso-aso	7. (그가) 서도, 자꾸 느껴지고	A
8. Lubang puki aku iko	8. 이 내 뿌끼(여성의 성기) 구멍이	B
9. Sataun jalan dlat	9. (그가) 일 년을 길을 가고,	A
10. Tigo bulan palayi'an	10. (그가) 세 달을 배를 타고,	A
11. Lubang puki aku iko taaso-aso jo	11. 내 이 뿌끼의 구멍이 자꾸 자꾸 느껴지네	B
12. Sapuluh cai bini,	12. 열 번을 침을 찾고	A
13. satui cai kondak	13. 백 번을 애인을 찾아도	A
14. Tak ado sasodap lubang puki aku iko	14. 내 뿌끼 구멍만큼 맛있는 건 없도다	B

위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주문 1>은 의미론적으로, 상대 남성의 행위(A)와 여성화자의 몸(성기)에 대한 언급(B)이 일정하게 반복하는 구조를 취한다(AAB/AAB/AAB). 또한 여기서 상대 남성의 ‘앉고’, ‘서고’ 하는 신체적 활동은, 다시 상태동사 ‘느껴진다’(taaso-aso)와 같은 남성의

7) 병렬구조(parallelism) 또는 대구법(couplet)이란, 이원적인 대립의 구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단순한 각운, 두운, 압운 등의 음성적인 대구뿐만 아니라, 통사론적, 의미론적 차원에까지 확대되어 나타날 수 있다(Jakobson 1960, 1966; Fox 1988). 이러한 병렬구조는 여러 사회에서 폭넓게 관찰되는 의례언어의 보편적인 형식적 특성의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Fox 1975, 1988; Keane 1997; Kuipers 1990).

8) <주문 1>과 유사한 또 다른 일곱 가지의 주문에 대한 좀 더 세분화된 의미론적 구조의 분석은 Kang 2002 참조.

느낌에 대한 언급과 결합되어 있다(6, 7, 11절). 한편, 이러한 주문 속에 나타나는 남성의 ‘상상된’ 행위와 느낌에 대한 묘사와 함께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는 여성의 성기에 대한 언급은 항상 ‘나’(aku), ‘이것’(iko) 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초월적’ 텍스트를 다시 “여기/현재”의 화자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언어적 장치를 통해서, 고정된 텍스트에 내재되어 있는 초월적 파워를 현재의 화자에게 불러일으키는 것이 가능해진다(텍스트의 초월성과 상황성에 대해서는 강윤희 2006 참조).

한편, 여성장르인 외설주문에서 표출하는 ‘지배문화에 대해 저항적이고 비판적인 여성의 목소리’(Gal 1991)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주문 1>의 텍스트에 나타나는 여성의 몸과 욕망에 대한 관점은 여전히 남성 중심적임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문 1>에서 언급되는 여성의 성기는 객관적인 모양에의 묘사나, 성관계시 여성들이 느끼는 느낌이 아닌, 철저히 남성의 느낌을 통해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여성의 성기는 남성이 “앉거나”, “서거나”, “길을 가거나”, “배를 타거나” 하는 다양한 행위를 속에서 “계속해서 느껴지는” 남성의 느낌을 통해 존재하며(6-11절, 이것은 심지어 현재 화자인 “나”가, 다른 여성들과의 비교 속에서, 상대방 남성이 느끼기에 가장 “맛있는 뿌끼”를 가질 것을 간원하는 언명에 까지 이른다(14절). 이러한 뿌팔랑안 여성들의 외설주문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몸에 대한 남성중심적이고 관습적인 시각의 차용은 다음에서 살펴볼 ‘몸을 잠구는 주문’(kunci badan)의 하나인, “파티마의 문”이라는 주문의 텍스트에 더욱 명확히 나타난다.

2) “파티마의 문을 잠구는 기도”

이번에 분석할 “파티마의 문을 잠구는 기도”(Doa Kunci Kati Fatima)는 여성들이 성관계 후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문 중 하나이다. 여기서 “파티마”란 뿌팔랑안 사회에서 자주 사용되는 여성의

이름이며, “파티마의 문”이란 여성의 성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말로서 때로는 “파티마의 천국의 문”(Pintu sogo si Fatima)이라고도 일컬어진다. 당시 74세인 여성 노인 미노에 따르면, 여성은 성관계 후 자신의 몸이 상하기 쉬우므로, 주문을 외워 “밖과 안을 모두 잠귀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밖과 안”이라는 것은 각각 여성들의 신체적, 정신적인 측면을 일컫는 것으로서, 신체적인 측면의 ‘문’은 여성의 ‘질’을 가리키며, 정신적인 면에서 문을 잠구는 것은, 자신의 몸을 영적인 힘으로 정화하는 것을 말한다. 미노는 여성들이 다음 주문을 외움으로써 “몸을 잠구고,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문 2> “파티마의 문을 잠구는 기도”(Doa Kunci Kati Fatima)

- | | |
|------------------------------------|-------------------------------|
| 1. Bismillahiramanirrahim | 1. 알라의 이름으로 |
| 2. Cup takacup-kacup | 2. 훑, 까훑, 까훑 (가위의 소리를 묘사한 것) |
| 3. Tumbuh di padang sibui-bui | 3. 부글거리는 들판 위에 자라네. |
| 4. Takacup kacup-ku | 4. 가위야, 훑 훑 소리내지 말거라. |
| 5. Sotollah Allah ratogak dii | 5. 홀로 서있는 전지전능한 알라와 함께 |
| 6. Aku mamakai “Kunci kati Fatima” | 6. 나는 “파티마의 문을 잠구는 주문”을 사용한다 |
| 7. Sompit belubang ja’um | 7. 바늘의 귀만큼 좁고, |
| 8. Koing abu dapur | 8. 부엌의 재만큼 바짝 마르고, |
| 9. Kosang sabut sekoping | 9. 아자열매의 길겉질만큼 바삭바삭하며 |
| 10. Hangat sepoti tempuyung | 10. 석탄만큼 뜨겁고 |
| 11. Podeh sepoti lado bepatah | 11. 고추처럼 맵고 |
| 12. Asin sepoti ga’am seisak | 12. 소금처럼 짭짤하고 |
| 13. Lomak sepoti nio nan gulo | 13. 아자유만큼 달콤하고 기름지며 |
| 14. Pintu sogo si patima | 14. 파티마의 천국의 문이여 |
| 15. Apo nan pulang ke o’ang | 15. 다른 사람들에게로 가는 것은 |
| 16. Ambe sepoti ketopang nio | 16. 아자겉질 같은 무미함과 |
| 17. Sojuk sepoti ayi di dapur | 17. 부엌의 물같이 차가움 |
| 18. Itulah nan pulang ke o’ang | 18. 이러한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가는 것이다 |
| 19. Aku makai “Kunci kati Fatima” | 19. 나는 “파티마의 문을 잠구는 주문”을 사용한다 |
| 20. Sotollah | 20. 알라와 함께 |

여기에서 주문 2의 내적구조는 앞서 살펴본 주문 1과 몇 가지 공통적인 언어적 특질을 가지고 있다. 우선 주문의 처음과 끝은 이슬람 문구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프레임의 형식을 취하며, 주문의 초입인 제 2절에

서 5절까지는 일정한 각운을 보이는 뻘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주문 1에서와 마찬가지로, 초입과 끝부분에 주문의 제목인 “파티마의 문을 잠그는” 주문을 사용한다고 밝힘으로서, 이러한 주문은 화자 개인의 창작물이 아닌, ‘조상의 말’로서 초월적 힘이 내재되어 있음을 명시한다.

한편, 주문 2는 뻘뻘랑안 사람들, 특히 남자들이 말하는, 성관계시 느껴지는 여성의 질의 일곱 가지 느낌을 잘 보여준다. 뻘뻘랑안 사람들은, “좁고”, “바짝 마르고”, “바삭바삭하며”, “뜨겁고”, “땀고”, “짜고”, “(달고) 기름진”(제 7-13절), “일곱 가지의 맛”이 여성의 질의 바람직한 상태라고 표현한다. 뻘뻘랑안 사회에서 사용되는 몸을 가꾸기 위한 주문인 “뻘마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듯이 이러한 여성의 질의 일곱 가지의 특징은, 각각의 특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물건들, 예를 들어, “바늘귀”, “부엌의 재”, “야자열매의 껍질” 등의 비유를 통해 나열된다. 이러한 특정 성질을 지닌 물건에 대한 언급은, 특정 주문 내에서 언급된 사물들의 성질이 주문을 외우는 행위를 통해서 고스란히 그들의 몸으로 전달된다고 믿는 그들의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다(강윤희 2004). 따라서 주문 1과 마찬가지로, 주문 2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성기와 성관계시의 느낌에 대한 묘사는 여성 자신들의 느낌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남성들의 관점에서 관습적으로 통용되는 표현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여성의 성기와 성관계 시의 느낌에 대한 묘사는 남성 위주의,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관습적인 표현에 기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구축된다. 예를 들어, 주문 2의 제 15-18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주문을 연행하는 현재의 화자 “나”는, 성기의 “무미함”과 “차가움” 등의 바람직하지 않은 성질은 “다른 사람”에게 가기를 소망하고 있다. 이러한 ‘다른 여성’과의 비교는 주문 1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주문 1의 제 12-14절에서 나타나듯이, 주문을 연행하는 화자는 상대 남성이 아무리 많은 “첩”과 “애인”을 찾더라도, “내 뿌끼만큼 맛있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소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문 1과 2에서 나타나는 뽀팔랑안 여성의 몸과 욕망은, 뽀팔랑안 사회의 관습적인 표현인 여성의 ‘일곱 가지 맛’이라는 담론에 기초하여, 남성의 성적 경험을 통해서, 또한 다른 여성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구축되고 있다.

그렇다면, 뽀팔랑안 여성들의 외설주문은 이러한 남성중심적인,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관습적인 시각만을 반영하고 있는가? 다음 절에서 살펴볼 부부간의 ‘뽀눈дук’(penunduk), 즉 ‘상대방으로 하여금 머리를 조아리게 하는 주문’으로 사용되는 “뽀끼(여성성기)의 말”이라는 외설주문은 여성들의 몸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해 준다.

5. “뽀끼의 말”: ‘무기’로서의 여성의 몸

이번 절에서 살펴볼 뽀팔랑안 여성들의 외설주문은 부인과 남편 사이에 사용되는 ‘뽀눈дук’의 일종이다. 여기서 ‘뽀눈дук’의 글자 그대로의 의미는 ‘상대방의 머리를 조아리게 하는 주문’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뽀눈дук은 위계적으로 상하관계에 놓인 사람들, 예를 들어, ‘학생-선생님,’ ‘자식-부모,’ ‘부하-상사,’ 또는 ‘관료-일반인’의 관계에 사용되는 주술로서, 위계적으로 하위에 놓인 사람이 상위자를 이기기 위하여, 또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화를 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문이다. 이러한 뽀눈дук은 또한 부인과 남편의 관계에도 사용될 수 있다. 뽀팔랑안 여성들에 따르면, 부부간의 뽀눈дук의 사용은, “남편이 부인에게 화를 내지 않고, 큰소리를 내지 않으며 나긋나긋하게 대해주게 만든다.”

다음 주문 3은 현지조사 당시 50대의 이부 씨티가 가르쳐준, 부부간에 사용되는 뽀눈дук의 하나인 “뽀끼(여성 성기)의 말”이다. 이부 씨티에 의하면, 이러한 주문을 외운 음료를 남편이 먹게 되면, 부인에게 “도저히 거친 말을 할 수 없고, 무슨 말이든지 잘 듣게 된다.”

<주문 3> “뿌끼의 말”(Kato Puki)

Minyak tagelang-gelang	기름이 출렁 출렁
Tagelang dalam kual	큰 그릇에 출렁 출렁
Monti duduk ajo tagolak	재상은 앉고, 왕은 크게 웃네
Berkar aku mamakai kato puki	“뿌끼의 말”을 사용하는 나를 축복하소서

사언절구의 뺨뽕형식을 취하는 주문 3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이미지는 앞서 살펴보았던 주문 1, 2에 나오는 여성과는 상당히 다르다. 제 3절에 나타나듯이, 현재화자 ‘나’의 ‘뿌끼’ 주문은 “재상도 앉게 만들고, 왕도 웃게 만드는”, 즉 어떤 고위층이나 권력자도 질 수 밖에 없는 주술적 힘의 근원이 된다. 일상적인 뺨뽕량안 사회의 담론에서, 부인은 남편에 비해 하위자에 놓이지만, 이러한 주문의 ‘이야기 세계’에서는 그 어떤 권력자도 이기는, 따라서 남편도 이길 수 있는 존재로 그 위계가 도치된다. 이부 씨티에 따르면, “세상에 뿌끼를 싫어하는 남자는 없기 때문에”, 여성의 성기를 언급한 위의 주문은 상대방 남성을 이길수 있는 주술적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주문으로서, “꼭깍끼의 말”(Kato Kup Kap Ki)이라는 주문도 있다. 여기서 “꼭깍끼”는 무의미하고, 해석이 불가능한 말이며, 이러한 “꼭깍끼”라는 주문에서는, 위의 주문 3과 마찬가지로 일상의 지배적인 담론을 전복하고, 패러디하는 여성의 모습과 함께, 여성의 성기는 ‘비밀스러운 무기’로서 재정의되어 나타난다.

<주문 4> 꼭깍끼의 말(Kato Kup Kap Ki)

Kato Allah taala Ajo Caut	알라의 말, 유일신인 음란의 왕 알라
“Kup Kap Ki”	“꼭깍끼”
Berkat aku mamakai “Kup Kap Ki”	“꼭깍끼”를 사용하는 나를 축복하소서
Allah taala Ajo Puki	유일신인 알라, 뿌끼의 왕

우선 <주문 4>의 텍스트를 보면, 여성화자인 ‘나’는 절대전능한 알라의 고귀한 이미지를 전복하고 패러디하여, 신성한 알라를 “음란의 왕”

십지어 “뿌끼의 왕”으로 부르기까지 하는 등, ㅼ뵁뵁랑안의 지배적 이슬람 전통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표현을 사용한다. 또한, 여성의 몸에 대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관습적인 표현을 차용했던 주문 1, 2와는 달리, 주문 4에는 ‘꿍꿍기’라는 해석이 불가능한 무의미한 단어가 등장하며, 이러한 무의미한 단어의 사용은 주문의 비밀성을 더욱 증가시킨다. 이 주문을 가르쳐 준 이부 필리도 “꿍꿍기”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필자의 질문에, “모르겠다. 주문이 그냥 그렇게 되어있다”고 대답하였다.

한편, 주문 4의 “꿍꿍기”라는 표현은, ㅼ뵁뵁랑안 사회에서 비밀의 말로 사용되곤 하는 “거꾸로 말”(bahasa terbalik)에 해당되는 말놀이의 일종으로 파악된다. 여기서 ‘거꾸로 말’이란, 각 단어의 음절을 도치시키거나, 무의미한 음절을 덧붙임으로서, 그러한 규칙에 익숙하지 못한 외부인들로 하여금 단어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말장난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판다이”(pandai: 똑똑하다)는 “(은)다빠이”(ndapai)로, “사이꼬”(saiko: 오늘)는 “꼬이소”(koiso)로 음절이 쪼개지고 도치되는 것이 ‘거꾸로 말’이다. 이외에도, 무의미한 접사를 각 음절에 붙임으로써 단어의 뜻을 더욱 모호하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예를 들어, “라 수다 마깁”(la sudah makan: 벌써 먹었다)에 “빠말”(pamal), 과 “빵깁”(pangkal)을 붙여, “라 수파말, 마빵깁”(la supamal mapangkal)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러한 ‘거꾸로 말’의 규칙을 통해 보았을때, “꿍꿍기”(Kup Kap Ki)는 여성의 성기를 나타내는 ‘뿌끼’(puki)의 ‘거꾸로 말’ 형태일 것으로 짐작된다. 즉, ‘뿌끼’의 각 음절이 도치되고, 각 도치된 음절에 반복적으로 /k/발음을 삽입함으로써 단어에 운율적 리듬을 부여하는 동시에, 그 뜻을 더욱 모호하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거꾸로 말’의 사용은 주문 4의 은밀함과 비밀성을 증가시키며, 이에 따라 이러한 주문에서 표현되는 여성의 성기는 남성에 대항하는 여성들의 비밀스러운 무기로 재정의된다. 따라서 주문 1과 2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성기는 남성의 성적 경험에 따라 구성되고, 남성의 성적 만족을 위한 도구로 규정되는 반면, 주문

3과 4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성기의 이미지는 남성에게 대항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표현된다. 따라서 외설주문에 나타나는 여성의 몸에 대한 관점은 그 주체와 맥락에 따라서 또한 주술 연행의 특수한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유동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6. 결론 : 사회적 행위로서의 외설주문

최근에 언어와 성의 관계를 다룬 학자들 중 일부는, 기존의 연구들이 ‘정체성’의 측면에만 초점을 둘 뿐, 섹슈얼리티(sexuality)의 측면, 즉, 언어가 어떻게 각종 성적 경험, 육체적 쾌락, 욕망 등의 측면과 연관되는지는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바 있다. 예를 들어, 카메론과 쿨릭(Cameron and Kulick 2003 a,b)은 기존의 언어와 젠더/섹슈얼리티⁹⁾의 관계를 다룬 연구가 ‘정체성’에만 관심을 가지며, 섹슈얼리티를 다룬다고 하더라도, 게이(gay) 또는 레즈비언(lesbian) 등과 같은 성적 정체성(sexual identity)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보다 완전한 언어와 성의 상관관계를 살피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배제하고, 대신 인간의 성적 경험과 그와 관련된 각종 관습, 이데올로기를 형성하는 데 작용하는 다른 요소들, 예를 들어, 성적욕망, (육체적) 쾌락, 판타지 등을 구축하는 데 언어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Kulick 1999, 2000).

이러한 카메론과 쿨릭의 주장(Cameron et al . 2003 a,b)과 같은 맥락에서, 이 논문은 뽀뽀랑안 여성들의 외설주문이 어떻게 그들의 몸과 욕망에 대한 관점을 반영하고, 동시에 구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정체성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배격할 것을 주장하는 카메론과 쿨릭

9) 여기서, 젠더(gender)란 성별, 또는 성별체계 등을 가리키는 사회적 성을 의미하며, 섹슈얼리티(sexuality)는 성적 경험과 욕망, 또 성과 관련된 관습과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한다(Bucholtz and Hall 2004 참조).

과는 달리, 이 논문은 뽕딸랑안 여성들의 ‘몸’과 ‘욕망’에 대한 시각과 해석은 오히려 여성들의 ‘정체성,’ 즉 ‘아내,’ 이자, ‘어머니,’ 그리고 한 씨족의 성원이라는 위치에서 재구성되고 해석됨을 보여준다. 즉, 뽕딸랑안 사회 내에서 언어와 섹슈얼리티 또는 성적욕망에 대한 관계를 살피기 위해서는 그들 구성원의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앞서 뽕딸랑안 여성들은 자신들의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러한 ‘외설주문’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뽕딸랑안 사회에서 나타나는 남성과 여성에게 허용되는 이동성의 차이, 즉 남성의 ‘자유로움’과 그에 따른 외부인과의 증가된 접촉의 가능성은 뽕딸랑안 여성들에게는 가장 큰 위협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편에게서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남편에게서 버림받음으로써 다른 이웃들과 부족 성원들에게 받을 모욕과 수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뽕딸랑안 사회에서 여성들은 비교적 독립적인 생계경제 활동에 종사하며, 따라서 남편이 없더라도 생계를 위협당하지는 않는다. 뽕딸랑안 여성들은 현금 수입이 없더라도, 씨족의 토지와 유산을 가지고 있으며, 화전농과 어업을 통해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인 자율성이 오히려 여성에게는 자신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떠나더라도, 부인들과 아이들은 먹고 살 수 있으므로” 뽕딸랑안 남성들은 더욱더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여전히 전통적인 관습이 중요시되고, 가족과 이웃 간의 관계가 중요시 되는 뽕딸랑안 사회에서, 남편에게 버림받은 ‘잔다’가 된다는 사실은, 가족 전체가 다른 부족 성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는 이유가 된다. 예를 들어, 현지조사 당시 30대 여성인 무음은 자바인과 결혼을 했다가, 남편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아들을 혼자 키우며 사는 ‘잔다’가 되었다. ‘잔다’가 된 무음에 대해

여, 마을 사람들은 항상 썩군거렸고, 심지어는 무움의 어머니인 미노를 ‘자신의 딸을 지키지도 못하는’ 무능력한 어머니로 폄하하기도 했다. 이러한 다른 부족 성원들의 ‘비난’과 그에 따른 ‘수치’에 대한 두려움은 여성들로 하여금 외부 여성들, 특히 도시여성들로부터 “남편을 지키고, 가족을 지킬” 주문을 찾게 만든다. 그리하여, 뽀팔랑안 여성들은 “도시 여자들은 화장을 하지만, 우리는 주문을 바른다”라고 말하기 까지 한다.

그러므로, 뽀팔랑안 여성들은 자신의 가족과 남편을 지키기 위해, 각종 외설주문을 외워 남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이부 또마에 따르면, “여자들은 보통 잠자리에 관심이 없다. 하루 종일 애보고, 집안일을 하는 데 (성적)욕망이 있을 수 없지. 하지만, 남자가 원하기 때문에, 여자들은 주문을 외워서라도 욕망을 불러 일으켜야 된다”고 말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욕망을 여는’ 주문인 “일곱 가지 맛”의 주문을 외운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욕망을 열기위해’ 여성들은 여성 성기의 “일곱 가지 맛”과 같은 남성의 성적인 경험과 욕망에 의해 규정되는, 여성의 몸에 대한 사회관습적인 관점을 차용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사회관습적 시각의 차용과 동시에, 뽀팔랑안 여성들은 외설주문의 연행을 통해서 지배적인 이슬람 젠더 이데올로기인 남성과 여성에 대응하는 지성/욕망이라는 이분법적 구조를 전복하기도 한다. 여성은 ‘욕망’에 지배당한다는 이슬람적 이데올로기와는 반대로, 여성의 ‘욕망’은 주문의 연행을 통하여, 남편을 만족시키기 위해, 또는 이웃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불러일으키는’ 행위의 결과이다. 따라서 이러한 외설주문의 연행은 여성의 욕망을 본능적인 것이 아닌, ‘사회적인 것’ 또는 ‘주술의 힘으로 획득되는 것’으로 재정의하며, 이에 따라 여성은 자신의 욕망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이성적’인 존재로 나타난다.

이러한 이슬람적 이데올로기의 전복은 뽀팔랑안 여성들의 또 다른 주문인 “뿌끼의 말”에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난다. 주문 내의 이야기 세계에서, ‘뿌끼’는 ‘재상’과 ‘왕’도 꿈쩍 못하게 하는 강력한 무기일 뿐만

아니라, 알라신은 더이상 성결하고 신성한 존재가 아니라, “음란의 왕” 또는 “뿌끼의 왕”으로 불리우는 “여성의 수호신”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앞서 살펴보았던 ‘욕망을 여는’ 주문에서 나타났던, 남성의 성적 경험과 관습적인 시각으로 구축되는 여성의 몸은, “뿌끼의 주문”에서는 남성을 이길 수 있게 하는 ‘비밀스러운 무기’로 재정의되며, 따라서 여성들의 ‘외설주문’은 여성들의 강력한 파워의 근원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장르의 연행을 통해 여성들의 행위성과 주체성은 형성된다.

결론적으로, 뿌팔랑안 여성들의 ‘외설주문’은 다양하고 유동적인 여성의 목소리를 보여준다. 뿌팔랑안 여성들은 외설주문의 연행을 통하여, 단순히 사회관습적인 관점을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차용하고, 이용하는 동시에, 지배적인 젠더이데올로기에 저항하고, 전복적인 시각을 제시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뿌팔랑안 여성들의 외설주문의 텍스트와 그 연행은 뿌팔랑안 여성들이 다양한 양식의 행위성과 주체성을 구축해나가는 장으로 역할하며, 이러한 주문의 연행을 통해서, 여성들의 몸과 욕망은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재정의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강윤희

2004 “주변화에 따른 전통 구술 장르의 변화와 언어이데올로기: 인도네시아 뿌팔랑안 부족의 사례”, 『한국문화인류학』 37 (2): 37-44.

2006 “의례언어의 시적구조와 다기능성: 인도네시아의 벌꿀 채집의례 분석”, 『한국문화인류학』 39(1): 73-104.

Abu-Lughod, Lila

1986 *Veiled Sentiments: Honor and Poetry in a Bedouin Socie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Andaya, Barbara.

1993. *To live as brothers: Southeast Sumatra in the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ie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Anderson, Benedict

1972 The idea of power in Javanese culture, C. Holt, Benedict Anderson and James Siegel, ed., *Culture and politics in Indonesi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pp.1-69.

Appadurai, Arjun., Frank J. Korom, and Margaret A. Mills (eds.)

1991 *Gender, Genre, and Power in South Asian Expressive Tradition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Blackwood, Evelyn

2000 *Webs of Power: Women, Kin, and Community in a Sumatran Village*. Lanham: Rowman & Littlefield

Brenner, Suzanne A.

1995 Women Rule the Roost: Rethinking Javanese Ideologies of Gender and Self-Control. In *Bewitching Women, Pious Men: Gender and Body Politics in Southeast Asia*. Peletz, Michael & Aihwa Ong, ed. Pp. 19-50.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ucholtz, Mary and Hall, Kira

2004 "Theorizing Identity in Language and Sexuality Research," *Language in Society* 33: 469 - 515.

Cameron, Deborah & Kulick, Don

2003a. *Language and sexu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b. "Introduction: Language and Desire in Theory and Practice," *Language and Communication* 23:93 - 105.

Endicott, Kirk M.

1970 *An Analysis of Malay Magic*.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Fox, James J.

1975 On binary categories and primary symbols: some Rotinese perspectives. In R. Willis ed., *The Interpretation of Symbolism*, London:Malaby. pp. 99-132.

1988 (ed) *To Speak in Pairs: Essays on the Ritual Languages of Eastern Indones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Gal, Susan.

1991 "Between speech and silence: The problematics of research on language and gender." In Micaela DiLeonardo ed., *Gender at the crossroads of knowledge: Toward a new anthropology of gende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175 - 203.

Goffman, Erving

1974 *Frame Analysis*. New York: Harper and Row.

1981 *Forms of talk*. Philadelphia: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Grima, Benedicte

1992 *The Performance of Emotion among Paxtun Women: "The Misfortunes Which Have fallen Me."*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Hall, Kira and Bucholtz, Mary (eds.)

1995 *Gender articulated: Language and the socially constructed self*. New York: Routledge.

Hatley, Barbara

1990 Theoretical Imagery and Gender Ideology in Java. *Power and Difference: Gender in Island Southeast Asia*. Atkinson, Jane & Shelly Errington ed. Pp. 177-207.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Hanks, William

1986 "Discourse Genres in a Theory of Practice," *American Ethnologist* 14 (4) : 668-692.

Jakobson, Roman

1960 Closing statement: linguistics and poetics. In T. A. Sebeok (ed.), *Style in language*, pp. 350-377. Cambridge: MIT Press.

1966 "Grammatical parallelism and its Russian facet," *Language* 42(2):399-429.

Kang, Yoonhee

2002 'Open Desire, Close the Body': Magic Spells, Desire, and the Body among the Petalangan Women in Indonesia, In Campbell- Kibler, Kathryn, Podesva, Robert J., Wong, Andrew (eds), *Language and Sexuality: Contesting Meaning in Theory and Practice*. pp. 267-288.

Keane, Webb

1997 "Religious Language,"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26: 47-71.

Kuipers, Joel

1990 *Power in Performance: The Creation of Textual Authority in Weyewa Ritual Speech*.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Kulick, Don

1999 Language and gender/sexuality. Paper presented at the Sixth Language and Culture Online Symposium.

<<http://www.language-culture.org/colloquia/symposia/kulick-don>>

2000. "Gay and lesbian language,"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29:243 - 85.

Livia, Anna and Hall, Kira (eds.)

1997. *Queerly phrased: Language, gender and sexual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Meyer, Rachel

2000 "Fluid Subjectivities: Intertextuality and Women's Narrative Performance in North India," *The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113 (448): 144-163.

Peletz, Micahel G.

1996 *Reason and Passon: Represenations of Gender in a Malay Society*. Berker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Raheja, G. and Ann Gold

1994 *Listen to the Heron's Words: Reimagining Gender and Kinship in North Indi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Siegel, James.

1969 *The Rope of Go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Skeat, Wlater W.

1900. *Malay Magic: Being an Introduction to the Folklore and Popular Religion of the Malay Penninsula*. London: Macmillan and Co. Ltd.

Tsing, Anna L.

1993 *In the Realm of the Diamond Queen: Marginality in an Out-of-the-way Pla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Key Words>: Indonesia, magical genres, women's genres, language and gender/sexuality, body, desire.

Indonesian Petalangan Women's Obscene Spells:

Language, Desire and the Body

Kang, Yoonhee*

This article explores the interplay among language practices, desire, and the body through a sociolinguistic analysis of Petalangan women's obscene magic spells called "Monto Cabul." "Monto Cabul" is a Petalangan women's genre that intends to increase sexual satisfaction between spouses. Petalangans believe that the performance of monto cabul can manage their bodies and sexual desires. Many women recite the spells in order to 'open desire' for their husbands' sexual satisfaction before sexual intercourse. On the other hand, women also use the spells to 'close the body' afterwards to protect their bodies. By describing and analyzing language features and patterns found in these magic spells, I show how Petalangan cultural notions of sexual desire and the body are linguistically constituted and socially embedded in their social relations.

Unlike many previous studies that have presumed "women's resistance" in women's genres, I focus on ambiguity and multivocality of

* Research Associate, Center for Folklore and Ethnography, University of Pennsylvania

women's voices found in the performance of Petalangan obscene spells. Through an analysis of the spells in the levels of texts as well as their social uses, I demonstrate how Petalangan women actively appropriate and utilize their dominant social conventions to represent the female body and desire. At the same time, I also argue how Petalangann women construct and perform their subversive views of the female body against their dominant Islamic gender ideology. Ironically, Petalangan women's usage of magic spells reveals women so 'rational' as to control their desires, while the Petalagans' dominant Islamic gender discourse describes the relation of men and women as the dichotomy between 'reason' (*akal*) and 'desire' (*nafsu*). Therefore, the Petalangan women's genre reveals the fluid and multiple subjectivities of Petalangan women, by deploying various notions of the body and desire in diverse social relations and contexts.